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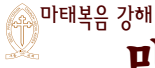
§ 2014년 표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十 행동 지침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마 17:14-23)

본문 15절에는 간질로 고통당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누구나 몸에 병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틈을 타면 질병을 도구 삼아 인생을 좌절하게 만들고, 믿음을 버리게 하며, 심지어는 비관하여 자살까지도 생각하게 합니다.

귀신 들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 아들도 고통스럽겠지만,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 보다 몇 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예수님을 찾아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셨고, 그 곳에 있던 제자들이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열심히 노력 했지만 아들은 낫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의 3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 어떤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심히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환경과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해하게 하므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 시대는 실로 엄청난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기근과 흉년이 계속 되는 가운데 이제 곧 바벨론이 쳐 들어와 나라가 멸망 당할 상황이었습니다(합 3:16).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이다”(합 3:17-18).

우리는 저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믿음의 문제가 있음을 간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들은 금방 패역해집니다.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9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청하는 내용 중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막 9:22)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 9:23)라고 책망하십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 간절함은 있었지만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서 저기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비록 우리 앞에는 많은 난관이 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므로 산들이 옮겨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If You Pray with Faith, Everything will be Done Well

(Matt.17:14-23)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In the text, there appears a father who had a son who suffered from seizures. Anyone can get a disease. But if a demon takes the most of a chance, it makes one's life hard by using the tool of disease causing him to throw away his faith. He might rather commit suicide because of his pessimistic view of life.

Though his son who entered into the fire and water should be painful because of being possessed by a demon, the heart of the father who had seen such a son might have felt more pain than his son.

And there, the father heard the news of Jesus. After asking all around he came to see him, He was not there. And His disciples tried to heal his son, but he was not healed. Just then, Jesus came down from the high mountain.

The disciples worked for almost three years with Jesus. They knew what kind of ability Jesus had and what kind of ability he gave them. Nevertheless, because His disciples did not heal the sick, Jesus rebuked that they had so little faith.

Since faith let us look at all our environment and matter from the viewpoint of God and understand the direction that God wants, faith is the driving force in which we can live our wonderful life of victory, even though we meet many problems.

The age of the prophet Habakkuk was really a terrible period of suffering. Amid years of famine and bad harvest, they were on the brink of collapse because Babylonia was to attack them (Hab 3:16). Nevertheless, by looking at the situation with his faith, he praised God.

“Though the fig tree does not bud and there are no grapes on the vines, though the olive crop fails and the fields produce no food, though there we are no sheep in the pen and no cattle in the stalls,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I will be joyful in God my savior (Hab. 3:1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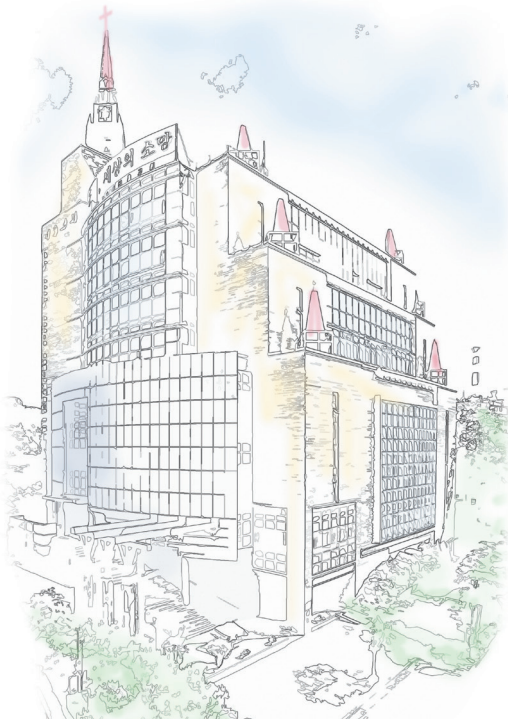
We may be in a difficult situation. Here is financial problem, health problem, and problems related to various other problems. But we never overlook that the root of these problems are related with to a faith problem. Now, we must hear the voice of Jesus. “Faithless, and rebellious man!” we will be rebellious right away if we are faithless.

When we read the same incident in Mark 9, in which a father asked Jesus, he asked, “But if you can do anything, take pity on us and help us” (Mk 9:22). For this, Jesus rebuked, ‘If you can’ said Jesus,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Mk 9: 23). The father really wanted to heal his son, but he had no faith.

My beloved Christians,

Jesus says that if we have faith as small as mustard seed, in other words, we have faith of vital power, we can move a mountain from here to there. Though we say we live our life for God's glory, we don't believe him, and without praying, we fall into despair and are disappointed.

Though there are many difficulties before us, if you pray, you will receive the vital power of which mountains will be moved, the red sea will be divided into two parts, spring water will spurt out between the rocks. By receiving God's guidance leading by fire and cloud pillar,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 a God's peopl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7주간의 기도와 응답

2014 사명자대회

10월 5일(주) ~ 11월 23일(주) 50일간

새생명축제 : 10월24일(금) / 10월26일(주일) 양일간

특별새벽기도회 : 11월17일(월)~11월22일(토) / 강사: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는 교회 설립 50일전부터 기도하므로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다. 해마다 교회 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50일 동안 사명자대회를 진행하므로 교회 설립 기념일인 11월 넷째 주일을 기쁨과 감사로 맞고 있다.

이에 국가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2014년 사명자대회를 10월 5일(주)~11월 23일(주)까지 50일간 시행하려고 한다.

2014 사명자대회 주제성구는 "나 여호와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으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찬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이사야 51:3)이며, 새생명축제는 10월 24일(금) / 10월 26일(주) 양일간 이뤄진다.

또한 특별새벽기도회는 11월 17일(월)~11월 22일(토)까지 「복 있는 자의 삶」(마 5:12)이란 주제로 박노철 담임목사가 강사로 선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란다.

행동강령

- (1) 합심하여 열렬히 기도한다.
- (2) 영혼구원의 열정으로 전도한다.
- (3)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긴다.

공동기도제목

-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 (1)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소서.
 - (2) 우리 가정이 에덴동산 같게 하셔서, 가정의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 (3) 우리의 일터에 복을 내리시고, 세상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 되게 하소서.
 - (4) 다음 세대가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고, 최선의 경주를 하게 하소서.
 - (5) VIP초대 새생명 축제에 모든 가정, 다락방이 참여하여 열매 맺게 하소서.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47)

(문 147)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호세아에게 창녀와 결혼할 것을 명령하셨습니까?

(답) 당시 국가적 상황을 보면 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호1:2)한 말씀으로 보아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호세아의 불행한 결혼생활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김으로 저지른 배신행위를 지적하기 위해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하신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떠나 도망친 아내 고멜을 다시 찾아 값을 지불하고 사오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끝없는 사랑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1:2)하신 것은 예지하시는 하나님이 호세아의 비극을 보시면서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관계에 대한 비유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의 두 아들과 한 딸의 출산을 통해 또 다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계시하셨습니다. 첫아들 이름은 이스르엘(4) 즉 흘으셨다는 것입니다. 불성실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흘으시겠다는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딸을 낳아 이름을 로루하마 즉 공허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아들을 낳아 로암미 즉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1:10)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 이름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스르엘은 흘으셨다는 뜻과 심는다는 두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씨를 뿌려 심겠다는 즉 회복을 말씀하고 그리고 2:1에서는 암미 즉 나의 백성이라 하고 루하마 즉 사랑 받는 자로 부르시겠다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는 6장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1)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한 책임입니다.

(다음 주 계속)

제45회 목회자 신학세미나 『목회의 심장이 다시 뛰다!』

10월 30일(목)-31일(금) 오전10시-오후6시

제 45회 서울교회 목회자 신학 세미나
목회의 심장이 다시 뛰다
일시: 2014. 10.30(목)~31(금) 오전10시~오후6시

- 1.開催기간: 2014년 10월 30일(목)~31일(금)
- 2.開催장소: 온라인 신청 서울교회 홈페이지 (http://www.seoulchurch.or.kr)
- 3.등록비: 2014년 10월 30일(목)~31일(금) 서울교회 - 사전등록 - 2만원 (현.결제 2014.10.24 서울교회) - 당일등록 - 2만원 (신청서 접수 후 당일(31일) 12:00)
- 4.강연장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517가)
- 5.문의: 서울교회 사무국 02959-1106

목회자 신학, 목회자 상담, 목회자 영성, 목회자 영성, 목회자 영성, 목회자 영성

제45회 목회자신학세미나가 10월 30일(목)~31일(금) 서울교회에서 열린다. 이번 주제는 '목회의 심장이 다시 뛰다'이며 강사는 D.A. Carson 박사(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 박영선 목사(남포교회), 한 흥 목사(새로운교회), 최갑중 총장(백석대), 박수암 명예교수(장신대)이며 통역으로 박노철 담임목사가 선다.

강의 주제는 D.A. Carson 박사의 「목회와 복음」, 박영선 목사의 「목회와 설교」, 한 흥 목

사의 「목회와 리더십」, 최갑중 총장과 박수암 교수의 「목회와 종말론」이다. 신청기간은 10월 1일(수) ~ 10월 25일(토)까지이며 등록회비는 사전등록은 20,000원(교재, 중식/과과, 기념품 포함), 당일등록은 30,000원이며 신학생, 선교사, 미자립교회 목회자는 10,000원(사전, 당일 등록)이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서울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입금계좌: 하나은행 215-196427-02404 서울교회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10월 17일(금) / 본문: 요한1서 1~5장

말씀 중심의 사도적 교회를 지향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훈련의 일환으로 성경암송대회를 매해 열고 있다.

올해 성경암송 본문은 요한1서 1-5장으로 하며 예선은 10월 12일(주일) 교육1국, 교육2-4국, 그리고 영어암송부로 구분하여 각각 진행한다. 본선은 10월 17일(금) 오후 7시에 있으며 시상 및 발표는 10월 19일(주일) 오후 찬양예배 시에 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천국시민양성 - 직분자 양성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찾아드립니다



김미성 권사
(직분자양성부 교사)

담임목사님 설교 중 "인생이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신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서울교회 5년 동안 예배만 드렸는데 다락방장의 권유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예배만 드리고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아 누리기만 하는 게 죄송해서 자진납세하러 왔습니다."

"새가족부 4주 수료하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옮기게 된 사연들...

이것은 직분자양성부에서 30초 동안 자기 소개하는 나눔입니다. 분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길에서 만나는 믿음씨들과의 4주 과정은 참나에 불과합니다.

새가족부를 수료하신 분들에게 전화로 소개해드릴 때에는 다소 불편함을 표현하시던 분들이 수료소감에서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큰 은혜였습니다"라며 고백하시고 봉사부서로, 성경공부반으로... 하

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찾고 정착해 가는 모습 속에서 기뻐하실 주님을 보게 됩니다.

직분자양성부에서는 서울교회에 새로 전입하는 세례(입교 또는 개종)교인들과 기존의 교인 중 아직 직분을 갖지 않은 세례교인들을 대상으로 직분자가 가져야 할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인으로서의 기본 소양과 서울교회의 조직 및 부서의 기능들을 교육하여 교회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와 봉사부서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교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서리집사 임명 시 직분자과정의 수료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장석남 목사님의 은혜로운 강의와 나눔, 김용환 부장님을 비롯한 교사들이 매주일 2부 예배 후 12시40분부터 1시40분까지 606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빛진 자로 성숙한 일꾼이 되어 주님의 몸 된 서울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찾고, 원하는 대로 드리고 사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 우리교회는 비전2020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해병대 중앙교회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사진 : 이준태 집사)



선교보고 - 서아시아

주님의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뜨겁던 더위를 서서히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멀리 서머나 한 모퉁이에서 전광혜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긴 여름을 마무리하면서 학교들(초, 중, 고 등, 대학 모두 함께) 이제야 개학하고 개강 했습니다. 워낙 더위가 기승을 부리니 거의 3개월 이상 방학을 한답니다. 그와 더불어 성도들도 방학이 아닌 방학을 하다 다시 돌아오는 현상이 매해 생기지요. 세례받은 후 서서히 구원의 감격과 사랑에서 멀어지는 자들도 있어서 늘 맘을 조립니다. 환경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네요. 가족들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압박감, 직장을 찾지못한 자괴감, 다른 성도로 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결국 교회와 멀어지는 상황들이 있어서 성령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을 간구합니다.

그럼에도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의 손길로 인해 다시 활기를 찾게 되는 성도들을 위해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멀어졌던 자들이 돌아오고, 연약해진 믿음을 추스리려 애쓰는 성도들도 있어서 감사하답니다.

저는, 눈 수술과 방광과 대장에 있던 초기 암을 제거하는 수술 후 건강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음식도 조심해서 먹고 나뭇 운동도 하는데 그래도 생기는 병들은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초기 암 발견과 제거 수술은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감사의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곧 시드는 들의 풀과 꽃과 같은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있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지 알게 하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주장하심에 감탄하고 감격할 뿐입니다. 저를 잊지않고 간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 또 이곳 사역을 위해 늘 간절한 마음으로 도고해 주시는 귀한 동역자님들에게 존경과 고마움의 마음을 올립니다. 7천 5백만명이나 되는 인구중 아직도 1만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이 땅 백성들을 위해 주님의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심정으로 살기 원하는 저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너무나 부족한 저를 위해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을 때 열린 마음으로 구주로 영접하여 영생을 얻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간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선한 아침과 저녁을 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며, 서울 식구 모두에게 신실하신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가득하길 간구하며, 늘 강건하고 평안하세요!!!

2014년 9월 16일
전광혜 선교사

2014 사랑의 바자



(사진: 최영철 집사)



세례식 신청 마감

10월 세례식이 19일(주일) 1,2,3부 예배 시 있을 예정이다. 세례/입교/개종/유아세례/대상자의 문답청원서 작성 및 신청 마감(607호)은 5일(주일)까지이며 문답총정리는 10월 12일(주일) 1,2부 예배 후 607호에서 있을 예정이며 대상자는 필히 참석 바란다. 기타궁금사항은(607호 세례교육부)로 문의 바란다.



영동시찰회

11월 4일(화) 오전 9시 창성시민교회(담임목사 장제한)에서 개최될 예정인 서울강남노회 제 55회 정기노회를 앞두고 영동시찰회가 9월 30일(화) 오전 11시 일심교회(담임목사 김학현)에서 모인다. 우리교회에서는 목사 회원으로 박노철 담임목사와 서명철 장석남 황광 유문건 김안성 임규현 목사가, 장로 총대로 오정수 노문환 이영기 서문석 박정선 최학인 신용식 오광환 최광성 오치열 장로가 참석한다.

스데반회체육대회

서울교회 스데반회(회장: 최차순 집사)는 체육대회를 10월 3일(금) 오전 9시에 베델하우스에서 개최한다. 참석 대상은 교역자 전체, 은퇴장로를 포함한 장로 일동, 은퇴집사를 포함한 스데반회 전원이다. 부부동반으로 참석 바란다.



B.M.W. 운동에 동참합니다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28일(주일) 금산중부교회에서 금산군민 초청예배 두차례 설교한다. 29일(월) 미래한국이사회 참석한다. 30일(화) 대전 세로남교회에서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 통국기도회 설교한다. 10월3일(금) 국민운동 합동추진도자(장로)협의회 확대모임을 소집한다.
- 주일식당봉사: 엘리야선교회 회회전도회(9.28) 모세선교회 루디아전도회(10.5)
- 금주의 식사 제공: 교회 제공
떡 제공: 이창호 성도(예담 떡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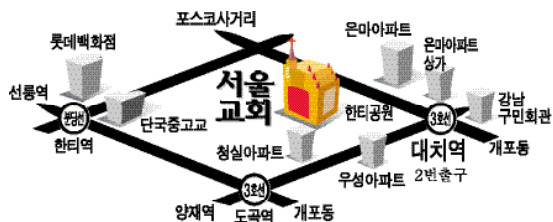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사랑의 바자 사역을 위해 넘치도록 수고하신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도록
2. 다음주에 발대식을 갖는 사명자 대회와 새생명 전도축제를 통해 교회의 뿌리를 되새기고 영혼구원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3. 10월 19일 주일에 있는 세례식에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세례교인이 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 일 예 배	I 부 예배	오전 9시
	II 부 예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I 부 예배	오전 11시
	II 부 예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웨스트민스터 홀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